

중국 · 대만 · 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psyang@kiep.go.kr
-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sslee@kiep.go.kr
- 문익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ijmoon@kiep.go.kr
- 노수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syno@kiep.go.kr
-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jhjung@kiep.go.kr
- 여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jina7@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체결한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혜를 홍콩에 부여함으로써 양자간 경제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
 -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중화권 내의 통합이 우리의 중국 및 중화권 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고,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대중화권 협력 전략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화경제권 형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향후 파급될 중화경제권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있음.

2. 주요 분석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의 협력 강화의 측면을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분석함.
-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음.
 -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 잠식이 불가피함.
 -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3. 정책 제언

1)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한·중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관계에 기초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 이러한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한국은 대중국 통상전략에 있어 ‘협력’을 강조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권의 경제통합 움직임은 한·중 간 쌍무적 통상환경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내 협력과 분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대중화권 통상전략에 있어 지나치게 중국에 편향된 통상전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즉 중국 중심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임.

2) 한·중 FTA 추진에 있어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

- 한·중 FTA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민감분야에 대한 처리 문제와 개방 수준에 관한 것임.
 -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과 관련하여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낮은 수준의 개방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개방 수준을 확대해가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중·홍콩 CEPA는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 개방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음.
- 한·중 FTA 협상에 있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중 FTA는 중국이 체결한 기존의 어떠한 FTA보다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국도 이미 미국이나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 중에 있지만 중국과의 FTA는 그보다 더 큰 경제적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양국에 미칠 거대한 파급력을 고려하고, 그동안 지체되어 온 한·중 FTA 협상의 용이한 진전을 위해 개방이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CEPA의 보충협정 방식을 채택하여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동시에 양자간 경제협력 대화 창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방해가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한·중 FTA 추진 시 중간재 분야의 조기 관세 인하 추진 필요

-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의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바, 2011년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6%, 78.4%에 달하고 있음.
 - 한국과 대만이 중국의 전체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각각 14.7%, 11.8%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과 대만 모두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과의 FTA에서 무관세화를 추진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임.
-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 잠식을 방어하고,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 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시사점

-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세적인 입장의 협상분야이고, 서비스 산업은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과의 경제교류에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임.
 - 중국은 홍콩과의 CEPA와 대만과의 ECFA의 EHP를 통해 서비스분야를 WTO 개방수준보다 높게 개방하고 있음.
- 한·중 FTA 서비스 개방과 관련하여 중국의 CEPA와 ECFA에 대한 입장을 감안한 협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5) 한·중 선행 협력 시험 지역·분야 도입

- 중·홍콩 CEPA에서는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 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가는 선행시험 조치(pilot basis)들을 포함하고 있음.
-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선행시험이 가능한 분야와 적절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함.
 - 선행시험지역의 선정에 있어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한국에 대한 우호도, 한국과의 상호 보완성,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가능성, 미래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면에서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 선행시험이 가능한 지역으로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둥성과 동북삼성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역인 것으로 판단됨.
 - 선행시험 분야에 있어서도 경쟁국에 비해 선점의 효과가 큰 분야, 미래시장 성장 분야, 한·중 간 보완성이 큰 분야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 선행시험 분야로는 중·홍콩의 서비스분야 시험 개방 이외에 중·대만 간의 산업 협력 프로그램에 담긴 의약, LED, 금융 분야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분야는 중국 시장의 성장성이 크고, 경쟁국에 비해 선점 효과가 큰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임.

6) 한·대만 경제협력 강화 협정 체결 검토

-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ECFA의 체결은 대만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임.
 - ECFA 체결 이후 일부 국가들이 대만과의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음.

- 경쟁국으로부터의 대만시장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대만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 일환으로 대만과의 무역원활화, 투자자유화, 경제협력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협력협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ECFA를 포함하여 대만이 기체결한 FTA와 경제협력협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CEPA를 활용한 대중 투자: 서비스 분야

- 한국기업은 CEPA에서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홍콩기업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홍콩기업의 CEPA 활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물류 운송, 소매 유통 등이 대표적이며 해당기업은 대부분 홍콩계 제조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물류 및 유통 서비스 분야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홍콩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진출이 유리하며, 한국 제조업체와 관련된 업무가 상대적으로 해당지역에 많기 때문임.
-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문화산업(영화 배급, 콘텐츠 판매 유통 등) 분야에서 홍콩과 협력하여, 중국 내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음
- 한국기업도 중국시장 진출 희망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홍콩기업 중 HKSS 조건을 갖춘 기업과의 협력(합자회사 설립, M&A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여 선점 우위를 누리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CEPA 시범지역으로 개발 중인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 주하이 형칭 등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중국의 관련 서비스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중화경제권 통합에 관한 선행연구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China, Hong Kong, and Taiwan: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real and financial integration - 연구자(연도): Cheung, YW, et al(2003) - 연구목적: 중화경제권의 통합정도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홍콩, 대만 간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통합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 - 1개월 은행간 금리, 환율과 물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
|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The suitability of a Greater China currency union - 연구자(연도): Cheung, YW, et al(2005) - 연구목적: 중화경제권 통합이 화폐통합으로 발전할 가능성 탐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정량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대만, 홍콩 간의 경제통합을 평가하고, 중화권 단일통화권(currency union) 형성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 |
|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WTO accession, the 'Greater China' free-trade area, and economic integra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 연구자(연도): Wang, Zhi(2003) - 연구목적: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과 대만 간 무역과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정량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GE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과 대만 간 무역과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분석 - 대중화권 경제통합을 위해 FTA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Macro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A Cross-Strait Perspective on Globalization - 연구자(연도): Burdekin, Richard C.K, et al.(2009) - 연구목적: 중·대만 간 경제통합을 거시경제적 상호의존도를 통해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정량분석 - 정성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산업생산, 물가, 통화량, 주가 등의 변수로 중국과 대만간의 경제 의존관계를 분석 - 대만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반대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연구자(연도): 양평섭 외(2007) - 연구목적: 중화권 경제 동향, 중화권 내 경제교류 관계의 긴밀도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전략을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분석 - 통계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권 내 경제교류 긴밀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분석을 통해 보임. - 중화권 내 경제협력 현황을 분야별(무역, 투자, FTA, 금융/물류/에너지/기술 협력)로 나누어 고찰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대 중국 통상정책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분야별 협력전략과 과제를 제시 |

참고자료 2. 한국의 대중화권 수출입 구조(가공단계별)

(단위: %)

| 가공단계 | | 중화권 | | 중국 | | 대만 | | 홍콩 | |
|------|---------|-------|-------|-------|-------|-------|-------|-------|-------|
| | | 2010 | 2011 | 2010 | 2011 | 2010 | 2011 | 2010 | 2011 |
| 수출 | 총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일차상품 | 0.5 | 0.6 | 0.5 | 0.6 | 1.1 | 1.0 | 0.2 | 0.2 |
| | 연료, 윤활유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중간재 | 74.0 | 73.9 | 71.5 | 71.2 | 82.8 | 85.6 | 80.3 | 78.8 |
| | 반가공품 | 36.7 | 39.9 | 37.0 | 40.8 | 46.0 | 51.9 | 30.3 | 28.8 |
| | *연료유 | 4.9 | 8.2 | 4.8 | 7.5 | 2.6 | 12.7 | 6.3 | 8.3 |
| | 부품 | 37.3 | 34.0 | 34.6 | 30.4 | 36.7 | 33.8 | 50.0 | 50.1 |
| | 최종재 | 25.4 | 25.5 | 27.9 | 28.1 | 16.1 | 13.3 | 19.5 | 21.0 |
| | 자본재 | 21.7 | 21.4 | 24.5 | 24.2 | 10.8 | 8.6 | 15.4 | 16.7 |
| | 소비재 | 3.7 | 4.1 | 3.4 | 4.0 | 5.4 | 4.7 | 4.1 | 4.2 |
| 미분류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수입 | 총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일차상품 | 3.1 | 3.0 | 3.4 | 3.2 | 1.0 | 1.4 | 3.6 | 5.1 |
| | 연료, 윤활유 | 1.4 | 1.2 | 1.7 | 1.4 | 0.0 | 0.0 | 0.0 | 0.0 |
| | 중간재 | 62.6 | 63.8 | 59.2 | 61.0 | 78.5 | 78.6 | 73.8 | 73.6 |
| | 반가공품 | 32.1 | 34.5 | 34.5 | 36.9 | 19.2 | 20.4 | 33.7 | 36.5 |
| | *연료유 | 0.9 | 0.9 | 0.9 | 0.9 | 0.9 | 0.9 | 0.1 | 1.3 |
| | 부품 | 30.4 | 29.2 | 24.7 | 24.1 | 59.3 | 58.2 | 40.2 | 37.2 |
| | 최종재 | 34.4 | 33.2 | 37.3 | 35.7 | 20.5 | 19.9 | 22.6 | 21.3 |
| | 자본재 | 20.6 | 19.5 | 23.1 | 21.6 | 8.7 | 8.2 | 14.7 | 12.6 |
| | 소비재 | 13.7 | 13.7 | 14.3 | 14.1 | 11.8 | 11.8 | 7.9 | 8.7 |
| 미분류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주: 가공단계는 UN의 Broad Economic Categories(BEC) 방식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분류에 대해서는 UN사이트 (unstats.un.org/unsd/cr/registry/regndld.asp?Lg=1)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DB이용 작성.

참고자료 3.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점유율 현황

(단위: %)

| | | 2010 | 2011 | 2012.1-7 |
|--------|------------|------|------|----------|
| 한국 점유율 | 전 체 | 10.1 | 9.6 | 9.1 |
| | ECFA EHP품목 | 16.2 | 17.6 | 17.9 |
| | 기타 품목 | 9.3 | 8.7 | 8.1 |
| 대만 점유율 | 전 체 | 8.4 | 7.4 | 7.0 |
| | ECFA EHP품목 | 12.3 | 11.6 | 11.7 |
| | 기타 품목 | 7.9 | 6.9 | 6.5 |

자료: 한국무역협회 DB를 이용 저자 작성.